

‘V12’ 호랑이 군단, 화려한 피날레 장식할까

올해 마지막을 장식하게 될 2024 신한 SOL뱅크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이 13일 오후 5시10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리는 가운데 열두 번째 우승을 이룬 KIA 타이거즈가 몇 명의 주인공을 배출할지 주목된다.

오늘 골든글러브 시상식 개최
김도영·박찬호 수상 유력 후보
네일·최형우도 각 부문 각축전
최다 수상 재탈환 여부도 주목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2일까지 미디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투수와 포수, 지명타자, 1루수, 2루수, 3루수, 유격수, 외야수 등 골든글러브 주인공 10명을 가리기 위한 투표를 실시했다.

올해 골든글러브 후보는 81명이다. 투수의 경우 규정 이닝을 충족하거나 10승, 30세이브, 30홀드 중 한 가지에 해당하면 된다.

포수와 야수는 특정 포지션에서 720이닝 이상 수비한 선수가 후보에 오르고, 지명타자는 297타석 이상을 들어서야 한다. 기록 부문별 1위 선수는 자격 요건에 관계없이 후보로 자동 등록된다.

KIA에서는 투수 양현종과 제임스 네일, 전상현, 정해영, 2루수 김선빈, 3루수 김도영, 유격수 박찬호, 외야수 소크라테스 브리토와 최원준, 지명타자 최형우 등 7개 부문에 10명의 후보가 나왔다.

가장 수상 가능성이 높은 후보는 김도영이다. 그는 141경기에서 타율 0.347(3위), 38홈런(2위), 40도루(6위), 109타점(공동 7위), 143득점(1위), 출루율 0.420(3위), 장타율 0.647(1위)을 기록하며 공격 부문에서 모두 TOP 10에 진입하는 등 역대급 활약을 선보였다.



3루수 부문 김도영

-10도루를 시작으로 전반기 20홈런-20도루, 내추럴 히트 포 더 사이클(안타, 2루타, 3루타, 홈런을 차례대로 기록), 퀸터플 트리플(3할-30홈런-30도루-100타점-100득점) 등 대기록 행진을 펼쳤다.

김도영은 시즌 종료 후 KBO 시상식을 시작으로 리얼글러브 어워드와 한국프로야구 은퇴선수의 날, 동아스포츠대상, 조아제약 프로야구대상, 일구상 시상식 등에서 트로피를 휩쓸고 있다.

이번 골든글러브 시상식은 피날레가 될 전망이다.

홈런 3위와 장타율 4위, 득점 9위, 타점 공동 9위에 오른 최정(SSG)과 타율 및

안타 5위, 출루율 7위, 장타율 9위의 송성문(키움)이 도전장을 냈지만 김도영의 존재감은 독보적이다.

수상 여부를 넘어 2020년 양의지(당시 NC·99.4%)가 기록한 역대 최고 득표율을 경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찬호 역시 유력한 수상 후보다. 그는 134경기에서 타율 0.307, 5홈런, 20도루, 61타점, 86득점, 출루율 0.363, 장타율 0.386을 기록했고 KBO 수비상 2연패, 리얼글러브 어워드 유격수 부문과 베스트 키스톤 콤비를 거머쥐었다.

박찬호는 박성환(SSG)과 2파전을

펼친다. 박성환은 137경기에서 타율 0.301, 10홈런, 13도루, 67타점, 78득점, 출루율 0.380, 장타율 0.411로 대등한 모습을 보였다.

네일과 최형우도 표심을 얻을 수 있는 후보군이다.

네일은 26경기에 선발 등판해 12승 5패와 평균자책점 2.53을 기록하며 평균자책점 1위와 승률 6위, 다승 공동 7위에 올랐다. 네일은 공동 다승왕 원태인(삼성)과 광빈(두산), 탈삼진왕 카일 하트(NC), 홀드왕 노경은(SSG), 세이브왕 정해영 등 쟁쟁한 후보들을 이겨내야 한다.

최형우는 116경기에서 타율 0.280, 22홈런, 1도루, 109타점, 67득점, 출루율 0.361, 장타율 0.499를 기록했고 타점 공동 7위에 이름을 올렸다. 최형우는 홈런 및 장타율 8위의 김재환(두산), 홈런 및 득점 공동 10위의 강백호(KT)와 격전을 펼친다.

또 최형우는 골든글러브의 주인공이 될 경우 최고령 수상 기록을 새로 쓴다. 현재 최고령 기록은 2022년 이대호(당시 롯데)의 40세 5개월 18일로 최형우는 시상식을 기준으로 40세 11개월 27일이다.

역대 최다 수상 타이틀에도 시선이 집중된다.

KIA는 전신인 해태를 포함해 1982년 차영화(2루수 부문)와 김준환(외야수 부문)을 시작으로 2022년 나성범(외야수 부문)까지 69개의 골든글러브를 수집하고 있다. 71개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삼성을 추월할 수 있는 기회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유격수 부문 박찬호

투수 부문 제임스 네일

전남도체육회, 최우수선수에 윤웅진·이은빈

2024 전남도 체육 유공자 시상식
FC목포·순천시청 남녀 최우수팀

전남도체육회가 올 한 해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해 땀 흘린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전남도체육회는 12일 무안 스키아워딩 컨벤션에서 ‘2024 전남도 체육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은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해단식을 겸해 진행됐다.

이날 시상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이철 전남도의회 부의장,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을 비롯해 350여명이 자리했다.

이들은 올해 전남 체육 활약상 시정을 시작으로 전남 체육 진흥 성과 보고와 선수단기 반향을 진행한 뒤 본격적인 시상식에 나섰다.

최우수선수상에는 우수의 윤웅진(전남도청)과 육상의 이은빈(전남체고)이 각각 선정됐다.

올해 전국체육대회에서 윤웅진은 우수남자일반부 산타 56kg에서 6연패의 위업을 이뤘고, 이은빈은 육상트랙 여자18세 이하부 100m와 200m, 4×400m 릴레이에서 3관왕에 오른 뒤 4×400m 릴레이에서는 은메달을 추가했다.

최우수팀상에는 축구의 FC목포와 양궁의 순천시청이 영예를 안았다.

올해 전국체육대회에서 FC목포는 창단 최초로 축구 남자일반부 우승을 차지

했고, 순천시청은 남수현과 유지현, 이은경이 양궁 여자일반부 단체전 3연패를 완성했다.

또 도지사 표창은 기명도 전남바둑협회장과 최소리 전남체조협회 사무국장 등 65명, 도의회 의장상에는 김강선 FC목포 코치와 허진석 목포여상 배구부 감독 등 15명, 전남도체육회장은 송희웅 함평군테니스협회 고문과 김종식 전남축구협회 심판, 문선규 순천유도스포츠클럽 사무국장 등 67명이 받았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전남 체육의 위상과 도민의 자긍심을 높여준 체육인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며 “전남도는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전남 체육이 더욱 힘차게 비상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전국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린 선수들을 위해 포상금을 대폭 상향해 사기가 높아졌다는 의견을 들었다”며 “내년 4월 전남에서 열리는 전국 생활체육대회전도 성공 개최해 지역의 위상을 드높이자”고 덧붙였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 역시 개식사를 통해 “파리 올림픽에서 날아온 전남 선수단의 승전보에 전남은 물론 한국이 하나 됐다”며 “가장 높이 나누기는 태극기를 보며 형용할 수 없는 전율을 느꼈다. 스포츠의 힘이 대단한 만큼 전남 체육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규빈 기자



안세영, 야마구치에 덜미

광주체고 출신 안세영(22·삼성생명)이 12일(한국 시간) 중국 저장성 항저우에서 열린 HSBC BWF(세계배드민턴연맹) 월드 투어 파이널스 2024 여자 단식 조별 예선 B조 2차전에서 야마구치 아카네(일본)를 상대하고 있다. 안세영은 이날 경기에서 야마구치에 첫 게임을 듀스 끝에 20-22로 내준 뒤 두 번째 게임에서 21-17 승리를 거둬 끝장 승부를 펼쳤으나 마지막인 세 번째 게임에서 15-21로 고배를 마시며 1승 1패를 기록했다. 안세영은 13일 한웨이(중국)를 상대로 승리해야 준결승에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이다.

AP/뉴시스

조선대 배준석,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 은메달

조선대 배준석(태권도학과 2)이 2024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남자단체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12일 조선대에 따르면 배준석은 지난 달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홍콩 콜로세움

에서 열린 ‘2024 세계태권도연맹(WT)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30세 이하 남자단체전 부문에 강원진(홍천군청), 임권우(경희대)와 함께 출전해 결승전에서 미국대표팀과 동점(9.12)을 기록했으

나, 연출성에서 밀려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배준석은 “열심히 대회를 준비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대회 역사상 최다인 77개국 1700여 명의 선수와 개인종합자 격선수(AIN)가 참가해 경쟁을 벌였다.

최동환 기자